

오륙도 칼럼



권 채 영

수필가

날씨가 매우 춥다. 봄을 시샘하는지 바람살이 매섭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곧 봄에 든다는 입춘이다. 봄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두근두근 벌렁벌렁하다 보면 온 몸이 온기가 전해지고 가슴까지 따스해 온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품속과 어찌 먼 그리도 같을까. 따뜻하고 포근하고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 그림고 간절한 것까지 열락없이 닦은꼴이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거칠고 매서운 바람도 그 품에 들면

봄은 녹듯 사라지고 만다.

요즘처럼 손발과 귀를 예어내듯 시린 겨울바람 앞에 서면 떠오르는 물건이 있다. 어려서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토끼가죽을 가위로 오리 형상을 붙이고, 고무줄로 연결한 귀마개와 털실로 촘촘히 짠 장갑. 동구 밖을 나서 산모퉁이를 돌 때면 어김없이 돌아치던 바람. 귀가 예이는 듯 매서운 그 바람살을 막아 준 방한용품이다. 공장에서 만든 것에 비하면 세련미도 볼품도 없는, 지금 아이들에게 주변 제자리에서 내뿜개쳐 버릴 투박한 것들이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포근했던 기억이 새롭다.

선조들 지혜 담긴 24절기

입춘은 24절기 중 하나로 대한 다음에 오는 절기로 24절기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갑자기 24절기가 궁금하다. 24절기란 태양의 궤적에 따라서 정한 분

봄 마중

점인데 평기(平氣)로는 5일을 일후(一候), 삼후(三候)를 일기(一氣), 일 년을 이십사기(二十四氣)로 하며, 경기(定氣)로는 황도를 이십사등분하여 각 등분점에 태양의 중심이 오는 시기. 즉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계(四季)처럼 철따라 나누어 놓은 절후란 말인데 태음력을 오래 사용해 온 조상들이 태양의 궤적을 따라 정확히 양력과 일치하는 24절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고도 신기하다. 들쭉날쭉한 음력보다 태양의 주기를 이용한 정확한 절기를 음력과 병용한 것은 비록 양력을 생활화하지는 않았지만 진즉부터 알았다는 얘기이다. 이 24절기는 이름에 담긴 그대로의 철(계절)이 왔음을 뜻하니, 입춘은 곧 봄의 시작점이다. 각설하고, 입춘이 저만치 눈앞에 왔는데

날씨는 아직 한겨울이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추위 속에도 봄맞이 준비가 한창임을 알 수 있다. 사람보다 느낌이 훨씬 민감하다는 미물이나 나무들을 한번 보라. 벌이 따사로우면 계절을 착각하기 일쑤인 절없는 개나리는 제처 두고라도, 매화와 목련은 추위 속에서도 총총한 망울마다 어느새 몽글몽글 삼을 올려 때를 기다린다. 누구보다 먼저 꽃을 피워야 하는 책무를 진 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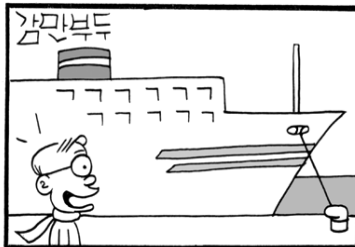
추울수록 봄 기운 가까워

등산로 옆 절레 냇물도 잎눈을 가늘게 치켜뜨고는 이제나저제나 하고 눈치를 살핀다. 양치바른 땅에는 이미 봄이 온 듯 벌써 풀썩거리 먼저 물고려 사팔개들 모여 야단법석을 떤다. 도랑가 버들강아지도 토실토실한 몸매를 자랑하고파 안달이 나는 지 게슴츠레한 눈을 뜨고 이리저리 주변 동정을 본다.

신선대

<240>

채 규홍



심어놓은 생활법칙

‘아이, ×발’ 범죄일까 아닐까

사람들의 말씨가 너무 거칠어졌다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어느 정도인가는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옆에서 들어보면 욕은 이미 그들의 대화의 한 부분으로까지 녹아 있다. 비하 내지 경멸의 감정이 아니라 대화의 접두어나 접미어 심지어 추임새 그 자체로 쓰이고 있다. 말은 그 사회의 품격을 나타내는데 예사롭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이는 모두 어른들 책임이다. 그런데 어른들도 욕에 대해 갈수록 관대해지는 것 같다. 특히 ‘×발’은 어른들도 흔히 입에 올리는 데 이 말이 최근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에 40대 택시승객이 요금 관련 시비로 신고를 했는데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의 표시로 ‘아이, ×발’ 하고 내뱉은 것이다. 이 욕설에 대한 모욕죄 여부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 각각 달라 이례롭다.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모욕죄는 인정되나 전과가 없는데다 현저하게 경미하므로 징자 2년간 죄짓지 않으면 끝내게 한 제일 가벼운 재판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2심은 그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욕의 무게를 달리 본 것이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는데 대법원은, 상대를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발’ 하고 내뱉었다면 상대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까지 볼 수 없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저속하긴 하나 분노 표현시에 흔히 쓰는 말이라고 보아 무죄 취지로 본 것인데 한마디로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지만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발’이란 말은 아직은 누가 들어도 기분나쁜 욕이 맞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내뱉더라도 반복할 경우 인격적인 수준이 의심할 정도로 강한 욕이다. 특히 이 케이스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을 상대로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의 입장에서 듣기 위해 달려왔는데 거짓 ‘아이, ×발’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욕설이 난무하는 사회는 품격 낮은 사회다. 욕설을 듣고도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둔감하게 넘김을 강요받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경찰관에게 예사로 욕설이 튀어나올 정도라면 이미 말 자체가 병든 사회다.



김성수 법무사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미담이나 세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특성화고교 보는 시각 이젠 달라져야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학교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이 고등학교의 이름은 특성화고등학교다. 조리, 간호, 마케팅, 관광 등 학문 보다는 직업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일깨워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 교육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학업 집중력이 인문계 고교에 비해 조금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이 생겨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입학 커트라인이

인문계 고교에 비해 다소 낮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 혹은 ‘실업계와 별반 차이 없는 학교’ 같은 편견이 만들어졌다. 특성화고의 다른 면을 봐줘야 한다. 장점에 시선을 맞추면 특성화고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달라지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옛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시대는 아닐 것이다. 그 예가 바로 특성화고이다. 이질적이고 낯설어 보일 수 무래도 학업 집중력이 인문계 고교에 비해 조금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이 생겨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입학 커트라인이

앞문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특

바른 우리말

짜집기(×) 짜깁기(○)

구멍이 뚫린 부분을
실로 찌서 깎는 것을
의미하는 말

웬지(×) 웬지(○)

왜인지의 줄임말
(오늘은 웬지 닭갈비
가 땡가네)

웬일(×) 웬일(○)

(오늘 웬일로 집에
일찍 온거야?)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6.1.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부산인력자원개발원	용당동	웹 디자이너	1명	16.01.21 ~ 03.20	월 250만원	051-629-7971
현대실업	대연동	배관청소원	1명	16.01.22 ~ 02.05	월 200만원	051-622-7788
충진물류	용당동	경리사무원	1명	16.01.22 ~ 03.21	월 130만원	051-626-2616
선보비케이원	용호동	육류가공원	1명	16.01.22 ~ 03.21	월 130만원	051-627-3422
참사랑 한의원	감만동	간호조무사	1명	16.01.22 ~ 02.21	연봉 2,200만원	051-647-4009
계룡건설산업	대연동	건축시공기술자	1명	16.01.22 ~ 02.21	월 300만원	051-626-9280
유일미디어	문현동	정보통신 설치기사	1명	16.01.21 ~ 02.05	월 150만원	051-802-9558
국제운수	감만동	컨테이너 배치원	2명	16.01.20 ~ 03.19	월 200만원	051-635-5757
아이에스통서	용호동	건축설계사	1명	16.01.20 ~ 03.19	연봉 4,400만원	070-4174-8066
고려노병화학	문현동	사무직(총무)	0명	16.01.20 ~ 01.29	연봉 2,600만원	051-644-2320
신성여객	감만동	경리사무원	1명	16.01.20 ~ 01.27	연봉 2,200만원	051-631-5072
케이플래트	대연동	사무보조원	00명	16.01.20 ~ 01.27	연봉 1,800만원	051-610-0771
푸드엔	대연동	배송 및 납품	1명	16.01.19 ~ 02.02	월 208만원	051-711-559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2월 남구 문화캘린더

공 연 명	공연날짜	공연시간	공연장소 및 문의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2월13일(토)	1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1-625-8297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 「러시아 음악 여행 - 차이코프스키 편」	2월26일(금)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1-607-3106
Falconry! 인간과 매의 역사	월~토(교내행사, 시행기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락 불가)	학기중: 10:00~16:30 방학기간: 10:00~14:30	경성대학교 조류관견시실 (홈페이지 참조) 051-663-4042
2015김만항의문화촌 일주작가 7인 릴레이 전	1월31일(일)까지	9:00~18:00	김만항의문화촌 김만항방화갤러리 (1층) 051-745-7248
에라경기 뮤지컬 달라콘서트	2월6일(토)	17: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051-805-3395
오늘은 내가 스타	1월1일(금)~ 1월31일(일)	매주 수요일 20:00	가온아트홀 1600-1602
피아노, 춤을 추다	2월18일(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10-4071-9288
2016 설악이 국악한마당	2월7일(일)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1-607-3143
제1176회 MBC목요음악회 -소울리스트 앙상블의 Camerata in Busan	2월25일(목)	19:30~21: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홈페이지 참조)
2016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2월29일(월)까지	10:00~18:00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010-3816-3108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산타라가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6. 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도산악회	2/14(일)	합천 황매산	010-3832-5971
	대오산악회	2/14(일)	지리산 노고단·온천	010-8557-0479
	악천산악회	2/17(수)	사천 각산	010-4655-4370
	한울림산악회	2/14(일)	태백산 눈꽃축제	010-9328-6091
	21C산악회	2/14(일)	경북 군위 마이산	010-6555-6940
용호동	금강산악회	2/7(일)	자유산행	010-3865-9051
	청산산악회	2/7(일)	자유산행	010-8008-2087
	산오름회	2/14(일)	고흥 두방산	010-7223-2277
	신선산악회	2/21(일)	남해 설출산	010-6520-0167
	여남산악회	2/14(일)	남덕유산	010-4553-6615
용당동	세월산악회	2/21(일)	김천 황악산 지지사	010-3580-7758
	용사산악회	2/28(일)	신형 배방산, 방어산	010-3586-6161
	용신산악회	2/14(일)	진안 마이산	010-4657-7051
	용호산악회	2/28(일)	통영 미륵산	010-2593-0361
	춘하추동산악회	1/17(일)	대둔산	010-6777-3374
감만동	문화산악회	2/28(일)	광주 무등산	016-564-8882
	용마산악회	2/14(일)	밀양 알음굴	010-2692-1170
	글로벌산악회	2/21(일)	김천 황악산	010-8287-1192
	우남산악회	2/21(일)	합천 가야산 산신제	010-7520-6666
	우암산악회	2/28(일)	여수 삼일암	010-6578-0488
문현동	한솔산악회	2/14(일)	자유산행	010-3098-0090
	문사산악회	2/14(일)	구인사절	051-631-9001
	문현2산악회	2/14(일)	대구 팔공산 갓바위	010-3178-3065
	문현산악회	1/31(일)	백암산 백암온천	011-9544-3434
	원뿌리산악회	2/21(일)	고성 백방산 시신제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16.1.1. ~ 12.31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예정인 가정
- 예외지원: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소득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최소 45만원 ~ 최대 162만원 지원
 - * 본인부담금 최소 20만원 ~ 최대 100만원(소득기준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서비스 이용기간: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이상(20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방청소, 신생아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식사준비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서류: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보험료 납부확인증 등
- 문의: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 ~ 30)

불법광고물 없는 남구

- ◆광고물(간판) 설치 시에는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허가(신고)없이 광고를 설치 시 철거 및 이행 강제금 이 부과. (최고 500만원)
- ◆화면이 변화하는 LED전광판은 불법광고물입니다.
- ◆이동 가능한 유동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즉시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파태료부과 등)를 할수 있습니다.

* 문의처: 남구청 안전도시과 광고물관리담당(☎607-4621 ~ 4626)